

한국소설에 재현된 차이나스 디아스포라

연구* **

—박범신의 『유리』와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를 중심으로

박 형 준***

요약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텍스트에 재현되어 있는 재한 화교(華僑)의 문학적 형상을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근대국가의 폐쇄적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냉전/분단 체제를 넘어선 문화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화교를 모티프로 한 장·단편소설이 일부 발표되어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문학 작품 중에서 '재한 화교'를 소재로 한 소설 텍스트는 그리 많지 않다.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시각으로 독해할 수 있는 한국소설 작품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수교 이전 한국 근현대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구화교'의 형상에는 디아스포라 연구의 쟁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 둘째, 한중수교 이후 입국한 '신화교'에 대한 관심과 서사적 재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재한 화교를 다룬 문학과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서, 디아스포라 연구 분야 중에서도 틈새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비 작업을 바탕으로, 이 논고에서는 박범신의 『유리』와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에 재현된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두 소설 텍스트의 서사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리(流離)』의 시사점이다. 첫째, 재한 화교의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 논문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2019.6.8.)에서 『한국문학의 차이나스 디아스포라·(2)』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한 핸드아웃 원고를 전면 재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이 자리를 빌려 학술토론을 맡아주신 장현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혼종적 정체성은 일국적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풍상(風霜)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재한 화교의 정체성과 시민성은 무역/상업 디아스포라로 분류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의 시사점이다. 첫째, 구화교와 신화교의 경계에 놓여 있는 화교 2세대의 정체성과 부유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추리서사 형식을 통해 이해 불가능한 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자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두 소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타자화되어 왔던 재한 화교의 상처와 고통을 감각하고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사고하는 문화적 계기가 된다.

주제어: 재한 화교, 디아스포라, 『유리(流離)』(박범신), 『너는 모른다』(정이현), 동아시아, 타자성

목차

1. 화교, ‘우리’라는 경계/폭력을 건너는 시좌
2. 화교, 디아스포라 연구의 쟁점과 틈새
3. 재한 화교, 동아시아 역사의 풍상과 부서진 정체성/시민성
4. 재한 화교, 이해 불가능한 세계/타자와 무지의 자각
5.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연구, 일국적 배타주의를 넘어서

1. 화교, ‘우리’라는 경계/폭력을 건너는 시좌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소설 텍스트 속에 재현되어 있는 재한 화교(華僑)의 문학적 형상을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¹⁾ 근대 국

1) ‘화교’를 명명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교·화인 등을 통칭하여 ‘재한 화교’라 부르기로 한다. 재한 화교와 차이니스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재한 화교라 하더라도,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차이니스 디아스포라(Chinese diaspora)’는 주체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추방/이주되어 ‘부유(浮遊)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세대만이 아니라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과 분열을 겪어야만 하는 자녀세대도 포함된다. 디아스포라의 기본 개념은 다음의 저

가의 형성 과정에서 발명된 폐쇄적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냉전/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문화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 민족국가는 ‘우리’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입안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견고한 애국심과 형제애를 구축하는 정치적 결속물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민족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파괴하는 합리적·정서적 근거로 기능하기도 한다.²⁾ 디아스포라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디아스포라는 민족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³⁾ 이것이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연구가 탈-민족적 관점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역사적 전개 양상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또한 영화나 문학을 비롯한 재현 텍스트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한국의 초기 디아스포라 연구는 ‘재외동포 이주사(史)’와 문학적 재현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미국, 캐나다 등으로 연구 권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

작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비런더 S 칼라외, 정영주 옮김,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로, 2013; 케빈 케니, 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앨피, 2016.

- 2) 베네딕트 앤드슨은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며, 그것은 원초적 정통성과 숙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용어나 범주가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조형물”이라고 보았다. 베네딕트 앤드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5, 23-27면.
- 3) 케빈 케니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은 “국가나 고국이 부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민족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대적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케빈 케니, 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앨피, 2016, 178면.
- 4)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24-25면.

되면서 국제이주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학적 재현, 비평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학적 디아스포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화교’에 대한 국내 연구도 진척되었다.⁵⁾

그러나 한국문학 장에서 ‘화교 디아스포라’를 다루고 있는 소설과 연구는 많지 않다. 백신애의 『꺼래이』(1934)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1979) 정도를 꼽을 수 있다.⁶⁾ 물론 중국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텍스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의 눈에 비친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형상(他者, image)에 주목한 논고가 대부분이다.⁷⁾ 한국소설에 재현된 중국인이 모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는 아니다. 디아스포라는 본국과 거주국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인 정체성과 시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재한 화교가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로 명명될 수 있는 까닭은, 이들이 국민국가의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안전망 바깥으로 추방된 존재(outcast)이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이 단순히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거나 기술하는 데 그치는 기록서사가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발화되지 못하

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연구 성과인 『화교 디아스포라—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북코리아, 2013;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2014; 『화교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북코리아, 2015 등과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2009;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로는, 오윤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이주의 상상력』,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65-288면; 박형준, 『한국문학의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한중인문학회, 2015, 153-176면 등이 있다.

7) 한국문학 속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성욱(2009),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원종찬, 『근대 한국이동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33-142면; 남춘애, 『한국소설에 비친 중국문화형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79-199면; 안청,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간도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논문, 2014; 전월매, 『한중수교이후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학회, 2019, 423-452면.

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유하는 문화적 의사소통이라면,⁸⁾ 재한 화교의 부서진 삶을 다룬 소설 텍스트를 발굴하여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 재현된 ‘재한 화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박범신의 장편소설 『유리(流離): 어느 아나키스트의 맨발에 관한 전설』(이하 『유리』)과 정이현의 장편소설 『너는 모른다』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문학 속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특징과 문화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두 작품은, ‘우리/민족’이라는 배타적 경계를 가로지르고 건너는 데 필요한 시차(視差)를 마련해주는 문화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화교, 디아스포라 연구의 쟁점과 틈새

한국 근현대사에서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한국문학 분야에서 ‘재한 화교’를 다룬 서사 텍스트와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를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사회·역사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 질적으로도 진전되고 있다.⁹⁾ 근대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화교는 통상 “무역/상업 디아스포라”¹⁰⁾로 분류된다. 하지만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특징

8) 조너선 켈러는 미하일 바흐친을 경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설 쓰기와 읽기의 필요성에 대해 적고 있다. “러시아의 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소설을 근본적으로 다성적(다수의 목소리로 구성된 것)인 것으로, 즉 단성적(하나의 목소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대화적인 것이라고 평한다. 소설의 정수는 다른 목소리나 담화 자체를 가져와 보여주고, 이로써 다양한 사회적 견해와 시각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서술이라는 것은, 자아와 타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대화인 셈이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귀 기울이는 일이 된다. 조너선 켈러, 조규형 옮김,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156-157면.

9) 문명기, 『한국화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8, 197-234면 참조.

은 이론적 도식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중층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19세기 이후의 화교 디아스포라는 ‘무역/상업형’과 “제국·식민형”, 혹은 “노동·고용형”¹¹⁾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 주체, 목적, 시기, 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882년 이후 한반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재한 화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재한 화교의 특징은 무역/상업 디아스포라에 가깝지만,¹²⁾ 일제강점과 8·15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성격이 변모하였다.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는 서구 이론의 시각으로는 일반화할 수 없는 지역별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재한 화교의 역사나 연구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시기/사건은 ‘1992년 한중수교’이다. 재한 화교의 정체성은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하여, ‘구(舊)화교(한중수교 이전 이주 화교)’와 ‘신(新)화교(한중수교 이후 이주 화교)’로 나누어지게 되며, 화교 연구 역시 이주 목적과 생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40여 년에 육박하는 근대 재한 화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화교’와 ‘신화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며,¹³⁾ 그것은 재한 화교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

10) 로빈 코헨에 따르면 화교는 무역/상업 디아스포라이다. 그는 디아스포라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역/상업 디아스포라는 “무역로를 따라가며 상품을 사고팔던 친취적인 상인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구축되었는데, 16세기 베니스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국 상인”이 대표적이다. 중국인의 “결속과 생존의 본질은 단기체류”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19세기 “화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로빈 코헨, 유영민 옮김, 『글로벌 디아스포라』, 민속원, 2017, 142-148면.

11) 근대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특징과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연구팀은 “근대 화교 디아스포라”를 “제국·식민형, 노동·고용형, 상업·통상형 디아스포라”라는 중층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임채완 외, 『화교 디아스포라』, 북코리아, 2013, 31-46면.

12)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41-42면.

13) 신/구 화교의 특징은 다음의 연구서를 참조할 것.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2009, 28-34면.

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장에서는 한국 근현대 소설 속에 재현되어 있는 재한 화교의 디아스포라 양상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한다.

첫째, 한중수교 이전 한국 근현대 소설 속에 재현되어 있는 ‘구화교’의 형상에는 디아스포라 개념의 쟁점과 특징이 함축되어 있다. 구화교의 역사를 1882년 개항 시기부터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로 잡는다고 할 때 (개항기-일제강점기-해방 이후부터 한중수교 이전),¹⁴⁾ 그 첫 자리에 놓이는 작품은 김동인의 『감자』와 최서해의 『탈출기』이다. 두 소설에는 모두 조선인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중국인 지주’가 등장하는데, 이들 캐릭터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악인(惡人)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문학 속에 등장한 중국인 이미지를 연구한 논고에서는 대부분 이 점에 주목했는데, 여기에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오해하지 말것은, 중국인 지주의 수탈과 폭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로빈 코헨 식의 디아스포라 유형을 참조하자면—,¹⁵⁾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지주가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기 위해 이주한 ‘무역/상업 디아스포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무역/상업 목적의 국제이주를 디아스포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핵심 조건(‘강제된 이산’과 ‘부유하는 삶’)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1925년에 발표된 『감자』와 『탈출기』에 재한 화교의 디아스포라 개념에 관한 쟁점이 담겨 있다면, 1934년에 발표된 백신애의 단편 소설 『꺼래이』는 ‘노동/고용형 디아스포라’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중국의 하층민을 강제

14) 화교 디아스포라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한 화교의 역사는 통상 네 시기로 구분된다. 1) 개항기,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부터 한중 수교 이전까지, 4)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글에서는 1)~3) 시기의 재한 화교를 ‘구화교’로, 4) 시기의 재한 화교를 ‘신화교’로 분류하였다.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2013; 임재완 외,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2014, 193-195면을 참조할 것.

15) 로빈 코헨, 앞의 책, 142-147면.

이주시키거나 매매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 쿨니”¹⁶⁾가 그러한 예다. 쿨니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적 인간형이다.¹⁷⁾ 해방 이후부터 한중수교 이전까지, 재한 화교의 삶과 문화를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텍스트로는 단연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이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성장소설이나 교양소설에 머물지 않고 십 수 년이 지난 다문화사회에서도 유의미하게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은, 구화교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혼종적 공간성(‘중국인 거리’)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둘째, 한중수교 이후 입국한 신화교와 재한 화교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서사적 재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재한 화교가 직접 쓴 수필과 인터뷰, 그리고 전문 연구자가 기록한 구술아카이브 등을 제외하고 나면,¹⁹⁾ 2000년대 이후 재한 화교의 삶을 재현하고 있는 소설 작품은 김미월의 단편 『중국어 수업』, 박범신의 장편 『우리』, 정이현의 장편 『너는 모른다』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사

16) 백신애, 『꺼래이』, 이종기 엮음, 『백신애 전집』, 현대문학, 2009, 44면.

17) 『꺼래이』는 일종의 국제이주 서사이다. 이 작품은 궁핍한 현실 속에서 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참담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특히 백신애 작가는 순이 가족의 월경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꺼래이’, ‘중국 쿨니’, ‘사회주의자’ 등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18)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중국인 거리(현재의 인천 차이나타운)’는 “가난과 상처,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이라는 ‘혼종적 부정성’으로 얼룩져 있는 타자성의 공간”이다. 오정희는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에 대한 “구별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내적 논리가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인해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형준, 『한국문학의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한중인문학회, 2015, 153-176면; 오정희(1979), 『중국인 거리』, 『문학과 지성』 10-1, 문학과지성사, 242-264면.

19) 소설 텍스트는 아니지만 재한 화교의 진솔한 삶을 기록해 놓은 수필과 인터뷰, 그리고 구술 자료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수기와 인터뷰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논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수필과 인터뷰로 손덕준 구술·송승석 채록,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2; 우매령, 『아버지와 탕후루』, 종합출판 범우(주), 2016 등을 들 수 있다.

회학과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며,²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작과 비평/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²¹⁾ 그 중에서도 ‘재한 화교’에 대한 창작과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다문화 담론과 디아스포라 연구 영역에서도 ‘차이나스 디아스포라’가 틈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중수교 이후 입국한 신화교가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차이나스 디아스포라는 구화교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김미월의 『중국어 수업』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²²⁾ 먼저,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어 유학생 ‘쓰영’이라는 인물처럼, 표면적으로는 한국어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신화교도, 실제로는 취업을 목적으로 도향하거나 미등록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들 역시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놓이게 되므로(“그들은 제적당하면 곧바로 강제 출국”되며 “그러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적이라는 말이다”),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화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신/구 화교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쉽지

20) 김일권, 『재한 중국인의 포섭과 배제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주의 연구: 구화교, 신화교,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강정구, 『다문화시대의 민족문학』, 청동거울, 2015; 이경재, 『다문화 시대의 한국소설 읽기』, 소명출판, 2015; 허정, 『공통성과 단독성』, 산지니, 2015; 김민라, 『한국 다문화소설의 서사담론 연구』, 국학자료원 2018 등과 같은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21) 윤인진 외, 앞의 책, 24-25면.

22) 『중국어 수업』의 서사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수’이다. 수는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수는 아침마다 인천행 전철 안에서 ‘화교 어린 남매’와 그들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할아버지’를 만난다. 화교 남매는 한국 화교학교에 다니며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한국어학원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의 팔 할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취업을 했으며, ‘쓰영’도 마찬가지이다. 쓰영은 유부녀 ‘명나’와 관계를 맺고, 결국 비자에 문제가 생겨 중국으로 강제 소환된다. 김미월, 『중국어 수업』,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창비, 2011, 96면.

않다는 점이다. 『중국어 수업』에 등장하는 “어린 화교 남매”가 구체적인 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언어문화적 분열이 적으며 거주국 환경에도 친화적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 역시 정체성 혼란과 모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구 화교의 분별을 통해, 재한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특질을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디아스포라 연구의 틈새이다.²³⁾ 디아스포라 연구는 일국(一國)적 민족 이주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혹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인간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영화에서 화교를 다룬 작품이 다수 개봉했으며,²⁴⁾ 소설에서도 재한 화교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소설 텍스트로는 박범신의 『유리』와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를 들 수 있다. 3, 4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텍스트가 되는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재한 화교, 동아시아 역사의 풍상과 부서진 정체성/시민성

앞에서는 재한 화교의 삶과 문화를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독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후, 한국문학 텍스트 중에서 재한 화교를 소재로 삼고 있는 소설 텍스트를 간단히 소개했다. 그 중에

- 23) 『중국어 수업』의 경우에도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보다는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가 중심이다. 이유숙, 「다문화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2015, 187-213면; 김지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 내용 연구—김미월의 〈중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연구소, 2019, 33-70면.
- 24) 김정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영화 속에 재현된 중국인 디아스포라 연구」, 『중국학연구』 46, 중국학연구회, 2008; 김종수, 「한국 영화에 재현된 중국인 형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27,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2; 김경녀,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의 난민화 양상과 포용적 가치 연구」, 부산외대 박사논문, 2020 등을 참조할 것.

서도 박범신의 장편소설 『유리』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 작품이 동아시아 근대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재한 화교의 부서진 정체성과 시민성을 사유하게 하기 때문이다.²⁵⁾ 이 작품의 서사적 대강과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유리(流離)’이며, ‘미스터 유리’나 ‘유리 할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1915년에 태어나 2015년에 사망하는 인물로,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핵심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²⁶⁾ 손주 ‘나’는 ‘유리’의 일대기를 설화적 형식으로 간접 진술하면서, 주동인물이 거쳐 온 시대적 사건과 공간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다. 유리는 청년 시절(일제 초기)에 친일지주인 혈육을 척살하고 일본 헌병대에 쫓겨 긴 난민 생활을 하게 된다. 유리(流離)라는 이름도 ‘거처 없이 떠돌던 시기’에 얻은 것이다. 소설의 명명법에서 예상할 수 있듯, 그는 저항과 생존을 위해 이곳저곳을 부유하며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 여정은 조선, 중국, 티베트, 타이완을 거쳐, 다시 한국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으로 기술된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 것은, 소설 속 인물이 일제강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위안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국공내전, 신해혁명, 일제 패망과 해방, 대만 2·28사건, 6·25한국전쟁과 휴전, 냉전체제와 분단의 고통, 군사혁명과 유신체제, 중국의 문화혁명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건너갔던 유리는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게 되는데,²⁷⁾ 한국 사람들은 그를 ‘화교’라고 부른다. 자신이 ‘조선인(혹

25) 박범신, 『유리: 어느 아나키스트의 맨발에 관한 전설』, 은행나무, 2017. 3장의 본문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병기하도록 한다.

26) 작가의 말을 참조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리(流離)는 1915년에 태어나 2015년에 죽는다. ‘갈식(乞食)’과 함께, 풍운의 근대 백 년, 동아시아를 숨 가쁘게 내달는 맨발의 사나이 유리의 백 년 인생을 그리면서 내가 자주 맛닥뜨린 건 내 안에 은닉되어 있는 꿈의 실체이다.” 박범신, 『작가의 말』, 앞의 책, 583-584면.

27) 유리는 중국을 거쳐 대만에 정착했으나, 미군 측 비공식 통역관으로 자원해 한국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휴전이 되어도 유리는 타이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시절은..... 풍류국으로..... 돌아갈 방도가 없었어. 사운이가 그리워 바닷가 인천으로 간 거야. (중략) 대지국 식

은 한국인)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결국 한국 땅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초점 화자인 ‘나’가 중심인물 ‘미스터 유리(혹은 유리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리』는 「작가의 말」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 열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소설의 서두와 말미에 프롤로그(“프롤로그—유리 할아버지”)와 에필로그(“나의 영원한 할아버지 미스터 유리”)를 배치하고 있지만 액자형식은 아니다. 사건의 마디마디에 ‘나’와 ‘미스터 유리’의 대화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의 작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화에 더 가깝다.²⁹⁾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먼저, 할아버지가 손주인 ‘나’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살부」 장의 첫 문장이 대표적인 예다(“옛날, 호랑이가 금연을 갈요받던 시절, 유리라는 한 남자가 세상으로 왔다”). 다음으로,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가 등장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은여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이다(“아, 바로…… 그…… 은여우였어. 우리의 수호천사”, 128면). 모두 설화적 구성 방식의 특징이다. 140여 년에 육박하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장구한 흐름을 한 권의 장편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논리적 구성보다는 문학적 직관에 입각하여 과감한 축약을 택한 것이

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로 인친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400면)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동아시아 각 국의 이름을 “수료국”(조선), “대지국”(중국), “화인국”(일본), “풍류국”(타이완)이라고 변주하여 적고 있다.

28)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장의 번호는 필자가 편의상 부가한 것이다. 1) 프롤로그-유리 할아버지, 2) 살부 3) 맨발 4) 다시, 유리 할아버지 5) 유리결식단 6) 길 7) 다시 또 유리 할아버지 8) 자학 9) 맨발의 혀와 꿩구멍 속 허공의 길 10) 다시 또 나의 유리 할아버지 11) 무국적자 12) 자유인 13) 또 나의 할아버지, 미스터 유리 14) 사랑 15) 나의 영원한 할아버지 미스터 유리.

29) 브룩스와 워렌은 『소설의 이해』에서 ‘사건(action)마디’와 ‘구성(plot)마디’를 구분하고 있다. 사건마디와 달리, 구성마디는 시간적 뒤섞임과 짜임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대소설의 플롯은 의미 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독자에게 예술적 효과를 부여하는 구성마디의 세밀함(혹은 필요성)이 중요하다. 박범신은 이 작품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중하, 『한국소설의 이해』, 1997, 78-79면.

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내용과 플롯을 통해,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에 관한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재한 화교의 혼종적 정체성은 일국적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의 풍상(風霜)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와 같은 설화적 서사 형식이 적합한 까닭은, 한국 화교의 역사와 동아시아 근대사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³⁰⁾ 재한 화교의 역사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미스터 유리’의 일대기는 거의 일치한다.³¹⁾ 유리는 강제된 이주/이산 속에서 부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적 인간형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① “우리처럼, 세상에서 쫓겨나 떠도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 유랑자? 아니면 유리걸식자?” (중략) 사람들은 그들을 ‘화교’라고 불렀다. 고유의 근면함과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화교들은 금방 알부자로 성장했다. (중략) 휴전이 되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인천 중심가로 나가 대지국 음식점을 처음으로 열었다. “성공했지.” 할아버지는 말했다. (중략) 휴전선으로 갈라졌지만 전행은 끝났고..... 내 나라에 돌아왔지만..... 고향엔 갈 수 없었다. 미칠밖에. 수로국은..... 휴전선과 바다로 들어싸인 감옥이었다. 그 감옥에서..... 사람들은 오직 돈을 좇아 혈안이 된 모습을 하고 살았어. (120면; 401-403면)

30) 『유리』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재한 화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과 화교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대지국인들이 인천으로 대거 들어온 건 임오군란 이후부터였다. 수로국의 정세가 위태로워졌을 때 대지국 전 왕조에선 산둥에 있던 수천 명의 군사를 파견했고 상인들도 이때 함께 왔다. ‘제물포조약에 따라 인천이 개항되고 조계가 설치되면서 대지국인의 유입은 더 급속히 늘었다. (중략) 비단장사는 돈을 굶는 사업이었고 산둥 음식에서 유래한 자장면은 수로인들도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화교’라 불렀다.”(401면)

31) “중국인들이 한국에 건너가 살게 된 역사는 고대 은나라, 주나라부터이지만, “한국의 화교 사회가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19세기인 1882년부터”로 볼 수 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했을 때 화교가 한국으로 이주해 왔”으며, “당시 청군과 함께 한국에 온 화상”이 “한국 화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정성호, 앞의 책, 41면.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리(流離)는 동아시아를 떠돌며 수많은 고초를 겪는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반도로 귀환한다. 유리의 본명은 ‘양형국’이고,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그는 대만에서 왔다는 이유로, “화교”로 탈바꿈된다. 주체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혼종화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대만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국경(“휴전선과 바다”)은 상징적 경계일 뿐 아니라 강력한 물리적 분할선(“감옥”)이기 때문이다. 유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주하지 못하고 ‘유랑/유리’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적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식민지의 이등국민이었던 ‘조선인’과 ‘재한 화교’를 민족국가로부터 쫓겨나 부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적 존재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재한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제국주의 침탈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역사적 풍상”, 475면)에 의해 부서지고 착종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성을 환기시키는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재한 화교의 부서진 시민성이 구화교의 역사적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다.³²⁾ 화교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무역/상업인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재한 화교는 냉전 체제의 감옥에 갇힌 이방인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무역과 상업을 통해 그 사회의 지배층이나 엘리트로 자리 잡은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 화교 등과 달리,³³⁾ 재한 화교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이다. 재한 화교는 중국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에 반대하며 피난 온 재외

32) 이 논고에서 사용하는 시민성의 개념은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이 국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열 가지 핵심 역량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존엄성, 최저수준,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시민권은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생존/거주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스바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경제적 토대와 사회보장, 정치적 권리 등이 핵심 요소가 된다.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들베개, 2015, 34-51쪽 참조.

33) 케빈 케니, 앞의 책, 2016, 89-90면.

(在外) 중국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후(戰後) 한국 사회는 ‘반공(反共)’의 깃발 아래 오히려 정치/경제적 박해를 가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②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 풍류국-타이완으로 돌아갈 방법은 전무했다. (중략)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자장면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무료급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406-407면) “더구나 당신은 화교잖아. 빨갱이야? 남의 나라에 와서 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래!” (중략) 화교 출신 빨갱이로 몰릴 판이었다. (중략)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은 강력했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사실상 토지 취득의 봉쇄라고 할 수 있었다. (407-408면; 438-439면)

인용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재한 화교의 시민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억압되고 파괴되고 있다.³⁴⁾ 먼저, 정치 영역이다. 재한 화교는 냉전/분단 체제 속에서 이념적으로 적대자의 형상(“빨갱이”)으로 표상되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래!”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특히 1세대 구화교는 무국적자에 가까운 차별과 박해를 받았는데,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 활동과 직업 선택의 폭도 제한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공산국가의 ‘스파이 취급(적군)’을 받기도 했다. 다음으로, 경제 영역이다. 재한 화교는 구화교이든, 신화교이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

34) 실제로 한국의 화교는 정치와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사회보장까지 제한받아 국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재한 화교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 설립은 물론 당원도 될 수가 없다. 또한 1960~70년대 ‘외국인토지법’과 ‘쌀밥 판매 금지령’ 등과 같은 차별 정책으로 경제적 탄압을 받기도 했다. 재한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시민성이 부서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한국의 화교 정책에 대해서는 김태만, 앞의 책, 21면을 참조할 것.

다. 인용한 대목에서 잘 드러나듯, 1961년에 만들어진 “외국인토지법”은 화교의 국내 토지 취득과 상업적 성공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재한 화교를 성공한 ‘무역/상업 디아스포라’로 분류하는 것은— 초기의 화교는 무역/상업 디아스포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는 맞지 않는 디아스포라 일반론의 오류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박범신의 『유리』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본래 조선인(“수로국인”)이지만, 강제 이주와 이산의 과정 속에서 화교(“풍류국”)로 착종되고 분열되었다. 조금은 과도한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이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일정 부분 유보한다면—, 장편소설 『유리』는 일국(一國)적 관점을 넘어 차이나리스 디아스포라의 분열적 정체성과 부서진 시민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4. 재한 화교, 이해 불가능한 세계/타자와 무지의 자각

재한 화교의 역사와 생활은 동아시아 제국/식민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 세계사적 차원에서 자유/공산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재한 화교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역사의 상흔 속에서 차이나리스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거두는 사유의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차이나리스 디아스포라에 대한 무지와 차별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를 함께 읽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작품의 서사적 대강과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는 모른다』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화교의 혼종적 정체성과 타자성을 사유하게 하는 소설이다.³⁵⁾ 『유리』가 1세대 구화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³⁶⁾ 이 작품은 재한 화교 2·3세대

의 이야기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장’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인물에 포커스를 두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분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차이나스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가정한다면, 핵심 인물은 재한 화교 2세 진옥영이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 본토 산둥성 출신이지만, 대만 여권 소지자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디아스포라적 존재이다. 진옥영은 화교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대학에 입학해 ‘밍’을 만나게 되고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옥영이 한국인 김상옥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옥영과 상옥 사이에는 초등학생 김유지가 있다. 김상옥은 본래 강미숙과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김은성과 김혜성이 있다. 상옥은 미숙과 이혼 후 옥영과 결혼한다. 유지에게 은성은 이복언니, 혜성은 이복오빠가 된다. 재한 화교 2세인 옥영과 한국인 상옥의 결혼은, 유지의 정체성을 혼종화한다. 유지는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놀림 받지만, 아무도 ‘유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소설의 핵심 갈등(김유지의 실종)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소설의 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너는 모른다』는 프롤로그(“0”)와 에필로그(“에필로그”)를 제외하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화교 2세인 옥영의 딸 김유지의 ‘실종’으로부터 시작된다. 0장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시체가 발견된 것은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추

35) 정이현, 『너는 모른다』, 문학동네, 2009. 4장의 본문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병기하도록 한다.

36) 3장에서 검토한 박범신의 『우리』는 1세대 구화교의 이야기가 핵심이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하여 8·15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독재와 산업화 시기를 아우르는 대하서사의 흐름(流離)을 보여주면서,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생존의 타전을 상실한 채 ‘우리(遊離)’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동아시아 재한 화교의 아픔에 이르고 있다.

37)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0”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소설은, “1장·시작의 시작”부터 “28장·끝의 시작”까지 이어져 있으며, 28장 뒤에는 “에필로그”와 「작가의 말」이 붙어 있다.

리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모른다』의 서사 과정과 결말은 사건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빠 김상옥, 엄마 진옥영, 이복언니 김은성, 이복오빠 김혜성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 근거하여 유지의 실종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지의 '실종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각 인물에게 부여되는 책임감과 죄책감도 마찬가지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생각과 판단은 모두 유지의 실종 원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장르 영화의 '후던잇(whodunit)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함정이다. 사건의 실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무지(무관심)를 폭로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이나리스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너는 모른다』의 내용과 플롯이 직조하는 서사적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너는 모른다』는 구화교와 신화교의 경계에 놓여 있는 '화교 2세대' 진옥영의 혼종적 정체성과 부유하는 삶을 보여준다.³⁸⁾ 옥영의 정체성은 『유리』에 등장하는 화교 1세대와는 결이 다르다. 소설에서는, 옥영과 아버지를 비교함으로써 이를 구분한다. 옥영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53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옥영에게 그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역으로, 아무리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은 미묘하게 불편하고 불안하다. 옥영이 대만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대만에서도 그녀는

38) 옥영은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부유(浮游)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옥영과 유지의 삶은 재한 화교의 혼종적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 돌아온 후 옥영은 줄곧 중국어 강사로 일했다. 다른 대안이 없었다. F2비자로는 한국에서 정식취업이 불가능했다.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한국 화교들은 모두 F2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오 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것이었다. 안정적인 측면을 포기한다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중략) 삶은 언제나 아슬아슬했다. 매일 밤 여행용 트렁크가 위에 놓인 침대 매트리스에서 잠들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그렇 것이다. 그곳에선 여기를 그리워하고, 여기서는 그곳을 그리워했다. 무기력한 습관이었다. 서른이 코앞이었다."(227-228면)

39) 실제로 화교 2세대의 대만대학 진학은 한국 사회의 배타적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960년

따돌림을 당한다. 화교 입시전형으로 입학한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긴 대만 출신 학우들 때문이다. 그것은 진옥영의 옛 연인 (김유지의 친부일지 모르는) ‘밍’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⁴⁰⁾ 옥영은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완전히 정주하지 못하는 상태로 부유하고 있는 ‘한중수교 이후 세대의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그곳에선 여기를 그리워하고, 여기서는 그곳을 그리워했다. 무기력한 습관이었다.”, 229면). 그렇다면, 『너는 모른다』와 『유리』가 분별되는 지점은, 1세대 구화교가 이해하지 못하는 2세대 화교의 세대별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화교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지의 경우 더욱 확실한 예가 된다.

둘째, 『너는 모른다』는 추리서사 형식을 통해서, ‘우리/민족’이라는 시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세계/타자(차이나스 디아스포라)를 자각하게 한다. 옥영이 상옥과 결혼하게 된 이유는 유리를 임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삶의 상태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옥영은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대~1980년대 한국 사회의 화교에 대한 차별, 배척적인 정책과 대만 정부의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 화교 2세대가 대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 한국 대학교로 진학한 사람이 4명 있으며 나머지 6명은 대만에 가서 공부하였다. 이를 통해 화교 3, 4세대는 화교 2세대에 비해서 대만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화되어 대만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팽의원, 『한국화교 3세대의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 중국, 대만, 한국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18, 58-59면.

40) 밍은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이다. 그의 일상에는 늘 외로움이 묻어 있는데, 유일하게 옥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일체의 단체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관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밍은 생래적으로 하나의 개인이었다. 결코 외톨이인 줄 모르는 외톨이, 빛 없는 선반 위에 따로 보관된 통조림처럼 안전하고 유일한 개체. 스스로 긴 검정 비닐봉지를 천천히 흔들면서 어두운 타이베이 거리 한 모퉁이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상상하면 영원히 옥영은 저릿한 통증에 사로잡힐 것이다. (중략) “니 아직도 그 생각 해?” / “뭘?” / “남태평양 어디쯤에 섬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 “.....” / “거기서, 우리끼리, 화교끼리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 “그걸 기억하네.””(56-57면)

싶다. 옥영이 밍에게 결혼 통보를 하고 일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밍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 236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장면에서 옥영의 진심이 노출되어 버린다(“진짜 한국 사람”). 다음으로, 옥영은 딸 ‘유지’만은 자신처럼 외롭고 아프게 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옥영이 유지에게 음악을 공부하게 하고, 예술중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진옥영은 딸이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고, 한국인 아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래 인용 ③에서 보듯,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③ “이 짱개야.” / 그 말은 여섯 살에 입학한 영어유치원에서 처음 들었다. 같은 반 남자에 하나가 그렇게 부르고 나서 키들키들 웃었다.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다니면서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 아이는 자신이 모욕 당했음을 알았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지만, 남자가 뱉어낸 억양에 조롱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중략) 그녀는 학교의 공식적인 방침과는 상관없이 휴대폰이 아이에게 아직 별 쓸 데가 없는 물건이라고 여겼다. (중략) 그녀는 제 딸이 아직 세속의 전자기기 같은 것에는 무심하다고, 즉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의사소통 수단이 불필요한 유아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다. (155-330면)

『9장 바흐, 샤콘느 라단조』는 이 소설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다. 유지는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학교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김유지는 자신이 왜 다른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 되는지 알게 된다. 엄마의 국적과 화교 정체성이 대물림된 것이다. “엄마가 짱개였고 엄마의 딸인 아이도 짱개”였으며, “짱개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다.” 왜냐하면 “폭력이 세상을 지배”(158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유지가 그런 소외와 폭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③에서 보듯, 옥영조차도 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⁴¹⁾ 유지의 실종 사건은 결국 무지와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유지는 인터넷게임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둘이 대부도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게 된다. 그러나 가족, 탐정, 경찰 그 누구도 유지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대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김유지 찾기’에 골몰한다. 이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타자성’을 이해 불가능한 세계로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서사 전략이다. 물론 여기에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④ “언니가 우리 유지 주려고 사왔지.” / 누나가 아이 곁에 다가왔다. 아이가 입을 벌리며 웃는다. 올망졸망 흰 이가 드러난다. / “어머, 유지 귀 안 뚫었잖아. 내일 당장 뚫으러 가야겠다.” / 누나가 유지의 귓볼에 귀고리를 가져다대고서 달랑달랑 흔드는 시늉을 한다. / “예쁘네.” / 옆에서 지켜보던 새엄마가 한마디 한다. / “혜성아.” / 누나가 내 이름을 부른다. / “어때? 유지 진짜 잘 어울리지?” / 나는 소파 뒤에 서서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조용한 세계다. 문득 내가 이들을 영원토록 알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든다. / 그곳을 향해 나는 가만히 한 발을 내딛는다. (486면)

결국, 김유지는 가족과 경찰이 추적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아예 다른 형태로 발견된다. 실종 후 구조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그러나 가족 중 누구도 실종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김유지라는 타자/세계에 가닿을 수 없다. ‘우리 안의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 2·3세대 재한 화교의 정체성과 내면세계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

41) 이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짚고서 “너, 바이올린을 정말로 좋아하니?”라고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159면)라는 대화문에서 잘 드러난다.

불가능한 차이나니스 디아스포라의 심연이기 때문이다. 표제에서 보듯, 정이현은 ‘너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자(‘재한 화교’)의 삶이 사실은 이해 불가능의 영역/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한 차이나니스 디아스포라의 타자성에 다가서기 위한 문학적 제안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이 작품은 단순히 부조리한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인용한 ④에서와 같이, 정이현은 이해 불가능한 세계, 저 미지의 타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너는 모른다』는 화교라는 타자에 관한 무관심을 ‘김유지 찾기’의 완벽한 실패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독자에게 문화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와 같이,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는 재한 화교라는 내부 타자와의 단절과 무관심을 자각하고 반성하게 하는 소설 텍스트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타자화되어 왔던 재한 화교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만드는 문화적 동기를 마련해 준다. 이것이 문학의 수행적 역할과 다르지 않다면, 『너는 모른다』의 서사 행위는 문학의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차이나니스 디아스포라 연구, 일국적 배타주의를 넘어서

디아스포라 연구는 일국(一國)적 민족 이주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혹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인간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태도이다. 그러나 차이나니스 디아스포라 서사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연구나 디아스포라 문화 연구 중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차이나니스 디아스포라가 한국 사회의 일국적 배타주의를 까발리는 상징적 좌표이자, 바로미터일 수 있는 까닭이다. 재한 화교에 대한 관심의 폭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지만, 한국문학 작품에서 이를 소재로 한 소설 텍스트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의 시각으로 독해할 수 있는 한국소설 작품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수교 이전 한국 근현대 소설 속에 재현되어 있는 ‘구화교’의 형상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의 쟁점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백신애의 단편소설 『꺼래이』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둘째, 한중수교 이후 입국한 ‘신화교’에 대한 서사적 관심과 재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재한 화교를 소재로 한 문학 창작과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이 논고에서는 박병신의 『우리』와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는 근대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시민성이 제국주의 침탈과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분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재한 화교의 혼종적 정체성은 일국적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풍상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재한 화교의 부서진 시민성은 무역/상업 디아스포라로 분류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너는 모른다』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재한 화교의 혼종적 정체성과 타자성을 사유하게 하는 소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구화교와 신화교의 경계에 놓여 있는 화교 2세대의 정체성과 부유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 둘째, 추리서사 형식을 통해 이해 불가능한 세계/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자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는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라는 이해 불가능한 세계, 저 미지의 타자를 향한 ‘말 건넌’을 시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우리』와 『너는 모른다』는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타자화되어 왔던 재한 화교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정초하는 문화적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다만, 이들

작품은 모두 한국 국적/입장의 작가에 의해 서술된 것으로, 재한 화교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창작과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소설 텍스트보다 수기와 인터뷰, 그리고 구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 텍스트 속에 재현된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 연구가 응시하고 마주해야 할 곳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 김미월, 『중국어 수업』,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창비, 2011.
 박범신, 『유리: 어느 아나키스트의 맨발에 관한 전설』, 은행나무, 2017.
 백신애, 『꺼레이』, 이중기 엮음, 『백신애 전집』, 현대문학, 2009.
 오정희, 『중국인 거리』, 『문학과 지성』 10-1, 문학과지성사, 1979.
 정이현, 『너는 모른다』, 문학동네, 2009.

2. 참고 논저

- 김일권, 『재한 중국인의 포섭과 배제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주의 연구: 구화교, 신화교,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지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 내용 연구—김미월의 〈중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연구소, 2019, 33-70면.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2009.
 박형준, 『한국문학의 차이나스 디아스포라—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한중인문학회, 2015, 153-176면.
 문명기, 『한국화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8, 197-234면.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임채완 외, 『화교 디아스포라』, 북코리아, 2013.
 ———,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2014.
 ———, 『화교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북코리아, 2015.
 오윤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이주의 상상력』,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65-288면.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2013.
 팽의훤, 『한국화교 3세대의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 중국, 대만, 한국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18.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돌베개, 2015.
 베네딕트 앤드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5.

- 비런더 S 칼라 외, 정영주 옮김,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로, 2013.
로빈 코헨, 유영민 옮김, 『글로벌 디아스포라』, 민속원, 2017.
조너선 켈러, 조규형 옮김,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케빈 케니, 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앨피, 2016.

<Abstract>

Chinese Diaspora Study Represented in Korean Fiction

—Focusing on Park Bum Shin's *Yuri*
and Jeong Lee Hyun's *You Don't Know*

Park, Hyung-J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ultural communication beyond the closed nationalism of modern nations and the Cold War / division of East Asia. By analyzing the literary shape of Chinese Diaspora in Korea expressed in Korean novels since the 2000s with a diaspora perspective. There are not many fiction texts about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in Korean literature. However, after the Korea-China Interchange, several novels and short stories with Korean-Chinese motifs were published, allowing us to examine aspects of the Chinese Diaspora. Investigating and reviewing Korean novels that can be read from Chinese Diaspora's perspective revealed two things. First, the issue of diaspora research is implicated in the shape of the old Chinese diaspora in Korea, which is reproduced i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s before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Second, the narrative interest and representation of the new Chinese diaspora in Korea, which entered Korea after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is gradually being achieved. However, literature and research on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are not yet extensive, so it can be said that the diaspora research is also in a niche. Based on this preliminary work,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 of Chinese diaspora reproduced by Park

Bum-shin's *Yuri* and Jeong Lee's *You don't kno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two novel texts are as follows. The implications of Park Bum Shin's *Yuri* are as follows: First, the hybrid identity of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should not be discussed from a national perspective, but should be understood in consideration of the wounds of East Asian history. Second, the identity and citizenship of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are historical contexts that cannot be classified as trade / commercial diaspora. And the implications of Jeong Lee Hyun's *you don't know* First, we can confirm the identity chaos and the unsettled life of the second generation of Chinese who lies on the boundary between the old Chinese diaspora in Korea and the new Chinese diaspora in Korea. Second, it uses a mystery narrative form to awaken (as incomprehensible object) the otherness of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Thus, the two works provide a cultural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wounds and pains of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who be otherization in Korean modern history and to create possibilities for new communication.

Key words: The Chinese diaspora in Korea, diaspora, *Yuri*(流離)(Park Bum Shin), *You Don't Know*(Jeong Lee Hyun), East Asian, Otherization

투 고 일 : 2020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9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